

나주·구례 AI 잇단 신고 ... 수평감염 확산 비상

방역 강화에도 속속 뚫려 위기 단계 '심각' 격상

전남도, 구례 3km 내 가금류 20만마리 살처분 건의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이나 예방 검사 과정에서 AI 감염이 드러나면서 우려했던 농장 간 전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지난 16일부터 조류 인플루엔자(AI)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방역활동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례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과 18일 해남·무안을 시작으로 28일 나주 공산, 12월 1일 장성, 7일 나주 동강, 10일 나주 남평·동강 등의 농장에서 모두 7건의 AI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7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동강의 한 오리농장에서 변경 3km에 있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AI 확진이 추가됐으며, 지난 10일 AI가 확진된 나주 남평의 씨오리농장 주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AI 확진이 추가됐다. 나주 남평

의 육용오리농장은 지난 9일 1만7000마리를 입식한 것으로 알려져 전남도 등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철새도래지가 없는 구례군 용방면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도 7000마리 중 600여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17일 접수돼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남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 7200마리와 반경 500m 안에 있는 4농가 3만9000마리도 살처분할 예정이다. 반경 3km에 있는 9농가 20만4000마리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여부를 따라 살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공식적인 철새도래지는 없으나 인근의 소하천에 철새가 서식하고 있어 철새에 의한 감염 여부, 인근 농장에서의 전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현재 전남에서는 나주에서 4건, 해남·무안·장성에서 1건씩 모두 7건의 AI가 발생했다. 나주 남평과 구례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중이다. 농가 21호에서

43만7000수가 살처분됐으며, 보상금(추정치)은 45억원으로, 계속 증가중이다.

전국적으로는 313호에서 1467만9000수가 살처분됐다.

전남도는 농식품부에 구례군 용방면 3km 이내 가금류 9호 20만4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건의했으며, 군 차량을 동원해 구례군 용방면 일대 도로를 소

독할 계획이다. 나주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생석회 20t을 긴급지원하는 한편 국내 두 번째 오리산지인 영암으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생석회 30t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AI 대응요원 종사자 508명에 대해 인체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 결과 지금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서울대공원 폐쇄 ... 우치동물원은 내일부터 임시 휴장

광주 우치동물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20일부터 임시 휴장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공원에서는 사육 중인 황새 2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AI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17일부터 대공원을 폐쇄했다.

18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서울대공원 '관란 조류'에서 AI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시민 안전과 멸종 위기종 등 동물원 조류 보호를 위해 20일부터 임시 휴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물원은 "최근 고병원성 AI 확산과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나주 등 전남지역에서도 잇따라 AI가 발생하고 있어 임시휴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원 반경 500m 이내에서 AI가 발생하면 임시 폐쇄하고, 3km 이내에서 발생하면 임시 폐쇄를 검토하도록 돼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치동물원에는 조류 55종 468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3종 22마리와 멸종위기종 20종 67마리도 포함돼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해질 17:23 달출 23:07 달짐 11:33

우산 챙기세요

아침부터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온뒤	7/14	보성	가뭇	4/12
목포	비온뒤	8/14	순천	가뭇	5/14
여수	가뭇	8/13	영광	비온뒤	7/14
나주	비온뒤	6/14	진도	비온뒤	7/15
완도	비온뒤	8/15	진주	비온뒤	7/13
구례	가뭇	3/12	군산	비온뒤	7/14
강진	비온뒤	7/15	남원	비온뒤	4/12
해남	비온뒤	7/15	옥산도	비온뒤	9/13
장성	비온뒤	5/13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북서~북	0.5
남부	면바다	남동~남	0.5~1.5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북동~동	0.5~1.0
	면바다(동)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면바다(서)	남동~남	1.0~1.5	남동~남	1.0~1.5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체감온도	관심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50	05:41	23:32	18:22
여수	06:25	00:26	19:05	12:58

◇주간 날씨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	☁	☁	☀	☀	☀	☀
9/15	5/13	11/15	2/4	0/6	-2/7	-1/6

이번주 광주·전남 잦은 겨울비 ... 기온은 포근

12월 셋째 주 광주·전남지역은 겨울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전망이다. 날씨는 평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9일 광주·전남지역은 새벽에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오후부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1~22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21~22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22~24일에는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4~2도, 최고 6~10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신나는 야외 스케이트장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인 18일,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휴일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야외스케이트장은 내년 1월 31일까지 46일간 운영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전공 무관 지원자 교수 공채 논란

김길용 교수 "생물비료학 분야 뽑는데 식물분자생물학 전공자 합격"

대학측 "공정하게 심사"

전남대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채용 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주장이 같은 대학 교수로부터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식품생명화학부 생명화학전공 김길용(56) 교수는 최근 해당 단과대학의 생물비료학(Biofer-

tilizer) 분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로 '식물분자생물학'(Plant molecular biology) 전공자가 결정된 데 반발,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합격자가 전공한 식물분자생물학의 경우 생물비료학과 전혀 무관하며, 해당자가 제출한 논문도 생물비료학과 관련성이 없다"며 애초 지원자들의 최종학위 논문과 연구실적물 공개 등을 대학측

에 요구했다.

김 교수는 또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학내 게시판에도 올리는 한편, 한국도양비료학회에 의뢰해 '생물비료학'과 '식물분자생물학'의 관련성 유무를 판단한 뒤 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대학측에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공과 무관한 지원자가 합격해서 문의했다니 학부 때 '비료학' 수업

을 수강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런 논리라면 학부 때 농약학을 수강한 경우라면 어떤 전공이라도 농약학 교수가 될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식물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과 생물비료학의 연관성 여부를 전문 학회에 보내고 그 결과를 보고 채용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보자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대학 측은 이와관련, 해당 전공 내 교수 3명이 참여해 심사를 진행한 점 등을 들어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운정동 태양광 사업 장기표류 불가피

1순위 녹색환경에너지 승소

광주시 상고 계획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등 난맥상을 보여 온 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지난 16일 (주)녹색환경에너지가 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1순위 협상 대상에서 배제된 시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측은 이와관련, 해당 전공 내 교수 3명이 참여해 심사를 진행한 점 등을 들어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업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8월 원고측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

인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녹색환경에너지가 애초 투자공모에서 1순위 협상 대상이었지만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LG CNS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배제된 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야 할 때도 국가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을 적용해 처분사유가 부적합하고,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상고할 계획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